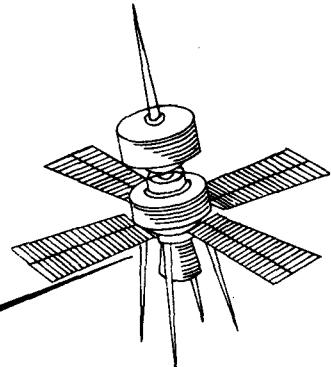


양계 안테나



김용화
(본지편집부차장)

'93축산시책 공청회

'93년도 축산시책에 대한 공청회가 정부 주재로 지난 12월7일부터 10일까지 축종별 또는 분야별로 나뉘어 각각 개최되었다.

시책확정에 임박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내보이는 식이 아니냐하는 질타도 있었으나, 어쨌든 과거와 달리 분야별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주입식으로 이끌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모양새야 어떻든 사전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코자 노력했다는 사실에 참석자들은 한점 기대를 걸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92년도에 대한 양계분야의 사업평가를 내렸는데 잘된 점으로는 △축산업구조개선 조기 실현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확대 △무허가축사 구제조치 △수입기자재 할당관세적용 △축사시설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들었고 미흡한 점으로는 △축산단지 부진, 계열화사업추진 부진 △축산업구조개선 사업비 집행부진 △생산비 지속적 상승 △홍보미약으로 꼽았다.

이중 잘된 점을 제외하고 미흡한 점에서 축산단지와 계열화사업에 대한 양축가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처음부터 잘 안될줄 알았다는 식이어서 우선 사업지원에 대한 방법론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축산단지도 어느곳 하나 뚜렷한 모양을 갖춘 곳이 없을 뿐 더러, 계열화사업도 경영난에 빠져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양계업에 대한 제반여건을 도외시한 채 혁신적인 경영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 이

론에 치우친 나머지 실행에 대한 경험의 없는 까닭에 부실한 경영이 계속되고 말아 생산비가 절감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

'93년부터는 양계농가의 자생력을 우선 배양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없는 재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재원 없이도 가능한 각종 상충법안의 정비를 필두로 고지에 도전하는 농가는 자생적으로, 영세농가는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게끔 유도하고, 유통 및 계열화사업, 양계단지도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면 이 같은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채란업의 재정립

촛불 앞에서 두손을 모으고 뜻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기원한다. 단지 촛불이 무엇 때문에 기원의 상징이 되었나 생각해 볼 때 어려운 해석은 차지하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불빛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채란업계는 '93년도의 경기가 희미하여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는 물론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즉 채란업은 어둠을 밝혀줄 촛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기원할 수 없다는 의미로 채란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93년 채란업 불경기론은 '92년 산란P.S 입식에서 이미 예고가 된 셈이다. 1~6월까지 누계치가 '91년 대비 34%가 증가하였으

며, 12월까지의 잠정치가 64만여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약 8%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92년 상반기에 입식된 계군들이 '93년 상반기에까지 집중적으로 병아리생산에 가담할 것으로 보여 이미 '92년 하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병아리값의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병아리값의 하락이 채란업의 경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생산비의 부담이 감소하여 유리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생추 가격의 하락은 곧 입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 계란 생산증가를 유발하는데 가장 큰 맹점이 있다.

'92년 정부에서 잠정집계한 계란 소비량은 1인당 10.9kg으로 약 200개(55g 기준) 대로 GNP와 식문화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소비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소비증가는 당분간 국내 산업의 불경기와 연계하여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이고 보면 결국 생산량을 채란업자 스스로가 조절하여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불황은 반복되어 왔으나 질병, 사회여건 등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생산이 대폭 증가한 이상 유통구조 하나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과감히 노계를 도태하거나 입추를 자제하여 나가는 길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촛불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계열화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무엇보다 필요한 해라고 본다. **양재**